

농산물 한약재 통관 면세기준 강화 무분별한 수입약재 반입자제 기대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산물 및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5월22일부터 해외 농산물과 한약재에 대한 휴대 통관 및 면세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휴대하여 들어오는 농산물과 한약재(한약)의 면세범위는 각각 해외 구입가격 10만원 이내, 합계액 20만원 이내에서 고추 5kg, 참기름 5kg, 홍삼 300g, 등과 같이 품목별로 면세중량이 정해져 있었다. 그 결과 국내외 가격차가 큰 한약재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량규모까지 대량반입이 가능해 국내 생약재배농가 피해는 물론 약재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농산물과 한약재의 2개품목에 대한 면세범위를 통합하여 해외구입가격 10만원 이내로서 반입총량 50kg 이내로 축소하는 등 통관 및 면세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상습적으로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하는 보따리상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해외출입국이 많아 면세기준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하여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반송코자 하는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는 유치서에 의해 간이하게 반송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정식반송신고(EDI)에 의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거친 후 반송을 허용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한 것.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과 한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이 자제돼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줄어들고 이들 물품의 국내시장 유통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황기 4,862kg 국내산으로 위장판매 적발

충북 제천 약초시장에서 중국산 황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 해온 한 상인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출장소(소장 최재원)는 5월 20일 중국산 황기 4,862kg을 국내산 황기로 위장판매한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K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

K씨가 5월19일 제천시 화산동 제천약초시장에 중국산 황기 950kg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는 것을 중국산 황기로 의심한 제천 약초시장 번영회의 신고로 적발하게 된 것.

K씨는 2003년 1월11일과 5월15일 두차례에 걸쳐 강원도 소재 B무역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생황기 9,960kg을 kg당 1,250원에 건황기 9,435kg당 2,660원에 총 19,395kg을 구입했으며, 중국에서 생황기 9,960kg을 구입하여 제조한 건황기 3,600kg과 수입한 건황기 9,435kg 총 중국산 건황기 13,035kg 중

4,862kg은 정선, 제천 등지에 kg당 6,330원에서 7,660원에 국내산으로 위장판매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00kg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천약초시장내 Y상회 세절 작업장에, 나머지 7,273kg은 강원도 소재 S업체 창고에 보관해왔다.

K씨는 수입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표시를 훼손하고 국내산 포장재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장판매, 또는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훼손 등의 혐의로 적발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최고 3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품관원 제천출장소 엄종현씨는 "오는 6월27일부터는 최고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형으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품관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출장소에서는 올 들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

안동시 노하동 한방생약 상가 조성

안동시는 한방생약 집단상가를 조성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노하동에 1천600평 규모로 이달내 착공, 연말까지 조성되는 생약집단상가는 안동생약번영회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고 안동시가 제반 행정지원을 맡는다.

안동시는 생약집단상가를 향후 전국 최대 한약재 집산지인 경북 북부지역의 한약재 특화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경북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와 연계해 한방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설

'용두사미' 되지 않게

그간 침체돼 있던 협회 조직이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다소 활기를 찾는 듯 싶다.

국산한약재 경쟁력 제고를 위해 GAP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중이고 유통활성화와 국산약재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고심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반목과 갈등으로 다소 어수선했던 협회 실태살아가 새 집행부의 노력으로 조기에 수습되어 가고 있는 부분 역시 다행한 일이다.

사무국은 신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협회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생산자단체로서의 조직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산약재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한약재 e-Marketplace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반의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특히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AP 시범사업 역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를 협회 관리감독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고품질화를 통한 국산한약재의 차별화 전략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선결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처럼 의욕을 갖고 시작한 일들이 비생산적인 주변의 잡음에 밀려 괜한 소모전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

어떤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협회발전이라는 거국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회원들의 보다 성숙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거듭 밀고 나가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 집행부는 늘 염두에 뒀야 할 것이다.

평창군, 희귀약용식물 직불제 실시 황기 만삼 하수오 토천궁 등 10종

강원도 평창군이 기존 쌀농업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를 희귀 약용작물 재배에도 적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창군은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희귀 약용작물의 품종보존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종의 약초류(5만평)를 선정, 직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직불제 대상 약초는 황기와 만삼, 하수오, 토천궁, 고본 등 모두 10종으로 군은 재배상황을 확인한 뒤 평균 생산비의 20~30%인 평당 1천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약용식물 직불제가 농가 호응은 물론, 효과를 거둘 경우 보존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희귀 약초류의 일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약용식물에 대한 직불제 실시로 경쟁력

있는 약초류를 다양하게 생산, 농가 소득을 높이는 한편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랭지 채소와 감자 등의 재배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사스' 덕 홍삼 수출 활기

중국, 홍콩 등에서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고려인삼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인삼공사는 올 들어 4월 말까지 홍삼제품 수출 실적은 43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0만달러에 보다 48%가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월별로는 △1월 111만 3000달러 △2월 67만2000달러 △3월 113만7000달러로 △4월 137만2000달러로 3~4월 사이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립중앙과학관, '우리 약초' 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은 5월 3~11일 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우리 약초' 특별전을 열었다.

이 특별전에는 과거 약으로 사용되던 투구꽃,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백두산 산삼과 장뇌, 진통제로 활용된 양귀비, 지사제로 활용된 이질풀, 염료와 향료 식물등 살아 있는 우리 약초 200여종 400여점이 전시됐다.

또 '북한 김정일 화' 등 야생화 100여종을 한 자

리서 볼 수 있고 약용 식물의 활용도를 알 수 있는 한약 재료와 바이오벤처 건강식품 및 신약 등도 함께 전시되었다.

이밖에 압화 만들기(4일), 꽃떡 만들기(5일), 화분 가꾸기(8일) 및 천연 염색(11일) 등의 체험코너도 운영돼 우리 생활에 깊이 연관돼 있는 식물 활용사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